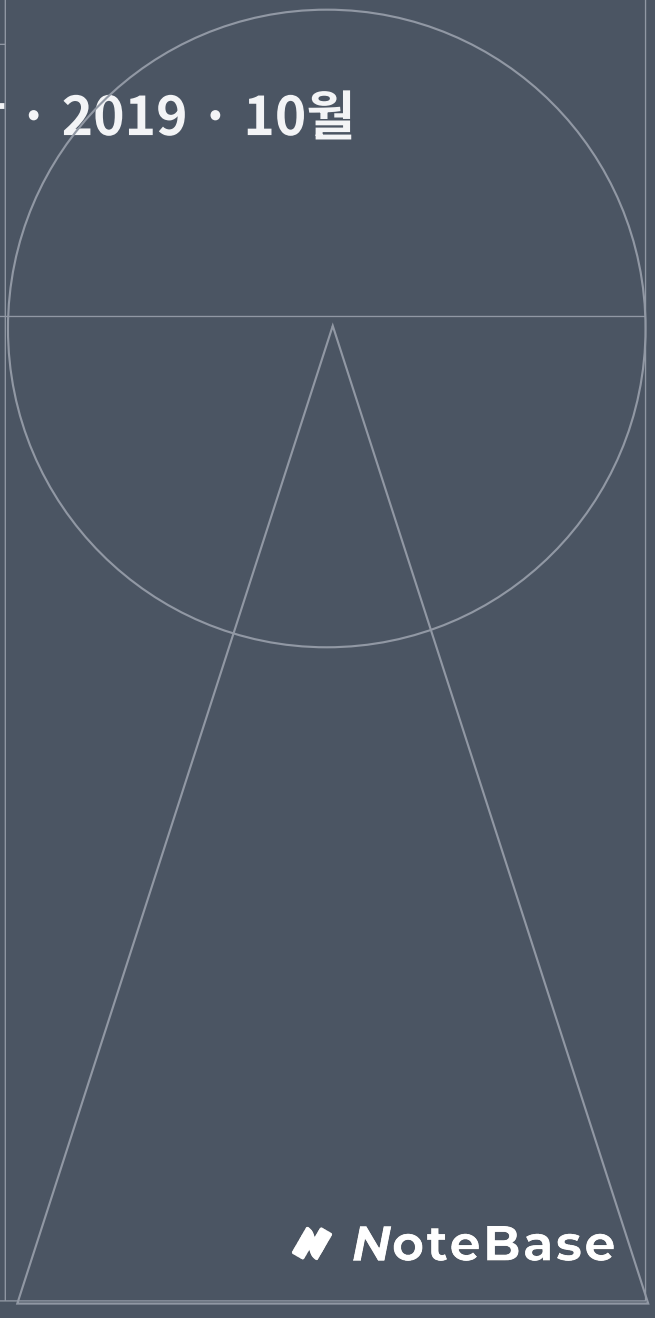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문 1. 환경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Hall은 공적 거리(public distance)를 1.2~3.6m로 구분하였다.

② 거리가 좁을수록 보다 사적이고 많은 양의 정보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③ Bell 등은 개인적 공간의 크기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④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유지되는 간격을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Hall의 대인지각 거리 구분과 Bell의 개인적 공간 개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Hall: 대인거리를 친밀거리, 개인거리, 사회거리, 공적거리로 구분한 학자이며 거리 범위와 상호작용 성격을 함께 본다.
Bell: 개인적 공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식 경계로 본다.
개인적 공간: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기 주변에 확보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개인적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유지되는 간격으로, Hall의 대인거리 구분 중 하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공적 거리(public distance)를 1.2~3.6m로 구분하였다"는 표현이다. Hall에서 1.2~3.6m는 사회거리(social distance)에 해당하고, 공적거리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 먼 3.6m 이상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Hall은 사회거리를 1.2~3.6m로, 공적거리를 3.6m 이상으로 보았다"가 된다.
② O: 대인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계는 더 사적 성격을 띠고, 표정·시선·음성 같은 단서가 더 많이 전달되어 정보교환량이 커질 수 있다. 거리와 상호작용의 친밀성은 비례적으로 연결된다.
③ O: Bell은 개인적 공간을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 개인 특성, 문화, 상황,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개인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진술은 맞다.
④ O: 개인적 거리(personal distance)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유지되는 간격을 뜻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 공간과 관련된 대인지각 거리 개념 설명으로 타당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Hall의 거리 범위를 뒤바꿔 놓은 선지이다. 수치 1.2~3.6m 자체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사회거리인지 공적거리인지가 자주 바뀌어 기억되므로, 숫자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Hall 문제는 학자명만 보지 말고 거리 이름과 범위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숫자가 나오면 먼저 친밀거리-개인거리-사회거리-공적거리의 순서와 경계값이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Hall은 거리 구분, Bell은 개인적 공간의 가변성이다.

NoteBase

문 2. 식생환경분석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종다양도 : 중요도지수는 방형구 내 개체 수와 빈도로 계산한다.

② 피도 : 육안에 의한 조사에 오차가 많아 수관투영면적 대신 흉고직경을 측정하기도 하며, Braun-Blanquet의 9개 구간으로 구분하는 조사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③ 밀도 : 단위면적당 종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④ 빈도 :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총 조사구에 대한 해당 종 출현 조사구의 비율로 산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식생환경분석에서 자주 쓰는 종다양도, 피도, 밀도, 빈도의 정의와 산정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다양도는 군집 안의 종 수와 각 종의 개체수 분포가 얼마나 고른지를 함께 나타내는 개념이다.
피도는 식물체의 지표면 투영면이 조사면적을 얼마나 덮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밀도는 단위면적당 존재하는 해당 종의 개체 수이다.
빈도는 전체 조사구 가운데 해당 종이 출현한 조사구의 비율로, 분포의 퍼짐 정도를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종다양도'와 '중요도지수는 방형구 내 개체 수와 빈도로 계산한다'는 연결이다. 종다양도는 종풍부도와 균등도를 함께 보는 개념이며, 중요도지수는 종다양도 자체가 아니다. 실제로는 종다양도는 군집 내 종 구성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중요도지수는 보통 상대밀도·상대빈도·상대피도 등을 종합하여 우점 정도를 본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관투영면적 대신 흉고직경을 측정하기도 하며, Braun-Blanquet의 9개 구간으로 구분하는 조사방법이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피도는 기본적으로 식물체가 덮는 면적 비율을 보는 값이므로 흉고직경은 피도의 직접 대체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는 수관이나 식생의 투영 피복 정도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Braun-Blanquet는 피도와 군도를 등급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단위면적당 종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밀도는 백분율 개념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개체수이다. 실제로는 단위면적 안에 그 종의 개체가 몇 개 존재하는지로 산정한다.
④ O. 빈도는 군집 내 분포 특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전체 조사구 수에 대한 해당 종 출현 조사구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정의와 산정 방식이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비율'과 '개체 수'를 뒤섞어 놓고, 종다양도·중요도지수·밀도·빈도의 용어를 서로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특히 ③은 단위면적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밀도처럼 보이지만, '종 수를 백분율로 표시'라는 부분이 붙는 순간 정의가 무너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엇을 세는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개체 수를 세면 밀도, 조사구 출현 비율을 보면 빈도, 덮는 면적 비율을 보면 피도, 종 수와 균등성을 함께 보면 종다양도이다. 선지에 백분율, 조사구, 투영면적, 개체 수 같은 기준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기준으로 바로 대응시킬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밀도는 개체 수, 빈도는 출현 조사구 비율, 피도는 덮는 면적, 종다양도는 종수와 균등도이다.

NoteBase

문 3. 「조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할 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보기>
식물이나 토양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위 환경의 수질과 수량 모두를 조절하는 자연지반을 기본으로 하며, 오염된 유출수를 흡수하고 이 물을 토양으로 투수시키기 위해 식재를 활용하는 '생물학적 저류지(bio-retention)'를 말한다.

① 레인가든
② 빗물체인
③ 정수시설
④ 수질정화시스템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 설계기준」상 생물학적 저류지(bio-retention)의 정의와 유사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생물학적 저류지란 식재와 토양을 이용해 오염 유출수를 받아들이고 침투시켜 수질과 수량을 함께 조절하는 자연기반 시설이다.

핵심 구분

레인가든은 식재된 생물학적 저류지이다. 빗물체인은 빗물을 여러 시설로 연결해 순환 이용하는 연계 시스템이고, 정수시설·수질정화시스템은 더 일반적이거나 처리시설 중심의 표현이어서 문제의 특정 정의와 다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 레인가든은 식재와 토양을 활용해 오염 유출수를 흡수·침투시키는 생물학적 저류지에 해당한다.
- 문제의 '자연지반', '식재 활용', 'bio-retention'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레인가든을 가리킨다.

② X
- 빗물체인은 빗물을 순환시켜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연계 시스템을 뜻하므로, 특정 식재형 침투시설인 생물학적 저류지와 다르다.
- 틀린 표현: 빗물체인
- 올바른 표현: 문제의 정의는 빗물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식재형 생물학적 저류지인 레인가든이다.

③ X
- 정수시설은 물을 정수 처리하는 일반적 시설 개념이어서, 자연지반과 식재를 이용해 유출수를 침투시키는 레인가든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정수시설
- 올바른 표현: 문제의 시설은 처리장형 정수시설이 아니라 생물학적 저류지인 레인가든이다.

④ X
- 수질정화시스템은 기능을 넓게 표현한 일반명사에 가깝고, 문제는 식재를 활용한 특정 시설의 명칭을 묻고 있다.
- 틀린 표현: 수질정화시스템
- 올바른 표현: 식재와 토양으로 수질·수량을 함께 조절하는 특정 시설명은 레인가든이다.

오답 포인트

빗물을 다룬다는 공통점 때문에 ②나 ④처럼 기능이 비슷한 넓은 표현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결정어는 '생물학적 저류지', '식재 활용', '토양으로 투수'라는 시설 정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형 문항에서는 기능보다 고유 키워드를 잡는 것이 빠르다. 'bio-retention', '식재', '침투', '자연지반'이 함께 나오면 레인가든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레인가든 = 식재형 bio-retention, 빗물체인 = 빗물 활용 연계 시스템이다.

NoteBase

문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의할 때, 식재 시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②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③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한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④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상 식재 시공식물의 하자보수 면제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면제사유의 열거와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하자보수 면제는 식재된 식물이 고사하였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핵심 구분

표준시방서는 전쟁·내란·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와 그 여파, 화재·낙뢰·파열·폭발,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혹한·혹서·가뭄·염해, 인위적 원인에 의한 고사를 면제사유로 둔다. 따라서 '지급한 상태'와 '지급하지 않은 상태'는 정반대이므로 그대로 바꾸어 읽으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는 표준시방서상 하자보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② O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와 그 여파에 의한 고사는 하자보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의 폭풍·홍수·지진 등의 예시는 이 범주에 들어간다.

③ X
표준시방서는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한 상태를 면제사유로 두지 않는다. 면제되는 경우는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 등으로 고사한 경우이다.
틀린 표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한 상태'
올바른 표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

④ O
교통사고나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처럼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는 하자보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나머지 면제사유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급하지 않은'을 '지급한'으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면제사유의 취지만 기억하고 부정어를 놓치면 ③을 맞는 문장으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방서나 기준에서 면제사유를 묻는 문제는 각 항목의 핵심 조건어를 원문대로 대조해서 판단한다. 특히 부정어, 주체, 비용부담 여부처럼 한 단어가 법적 효과를 뒤집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하자보수 면제는 '자연재해·사고·인위손상'과 '유지관리비용 미지급 상태의 기상 피해'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비탈면에 도입 가능한 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귀나무 - 척박지에 잘 생육하며 종자 파종 시 발아가 잘되는 속성수임

② 낭아초 - 흡착근으로 잘 부착하여 생육하며 단풍이 아름다움

③ 참싸리 - 콩과 식물로 2m까지 자라며 토양유실 방지 효과가 있음

④ 쪽동백나무 - 식생 천이단계에서 참나무 다음으로 나타나며 습기가 많고 토심이 깊은 곳을 선호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탈면 도입 식물의 생육형, 입지 적응성, 토양유실 방지 기능을 식물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귀나무와 참싸리는 척박지 적응성과 토양보전 기능이 큰 비탈면용 수종이다.
낭아초는 비탈면 녹화에 쓰이는 관목이지만 덩굴식물처럼 흡착근으로 벽면에 붙는 식물이 아니다.
쪽동백나무는 습윤하고 토심이 깊은 입지에 잘 맞는 수종으로 천이가 진행된 숲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자귀나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속성수이고 비탈면 녹화에 활용된다. 종자 번식도 가능한 수종이므로 선지의 큰 방향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흡착근으로 잘 부착하여 생육"이다. 낭아초는 관목성 비탈면 녹화식물이지 담쟁이처럼 흡착근으로 대상물에 달라붙어 자라는 식물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낭아초는 비탈면에 식재할 수 있는 관목으로 생육하고 꽃과 수형을 감상할 수 있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3번 O: 참싸리는 콩과의 관목성 식물로 크게 자라며 뿌리 발달과 지피 효과로 토양유실 방지에 도움이 된다. 비탈면 피복과 사면 안정에 쓰이는 수종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4번 O: 쪽동백나무는 습기가 많고 토심이 깊은 곳을 선호하는 수종이다. 천이가 진행된 비교적 안정된 임분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함께 잡은 설명이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비탈면 식물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생육한다고 보면 틀린다. 2번은 비탈면용 관목이라는 사실을 덩굴성 흡착근 식물의 특징과 뒤섞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먼저 생육형을 본다. 교목인지 관목인지, 덩굴성인지 아닌지를 가른 뒤 입지 조건과 토양보전 기능을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낭아초는 비탈면 관목이지 흡착근 덩굴식물이 아니며, 참싸리는 토양유실 방지, 쪽동백나무는 습윤한 깊은 토심 입지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6. 조경 경관분석 방법 중 경관우세요소가 아닌 것은?

① 색채(Color)

② 축(Axis)

③ 질감(Texture)

④ 형태(Form)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경관분석에서 직접 지각되는 시각적 구성요소와 공간을 조직하는 설계 원리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색채는 경관의 색상과 명도, 채도처럼 눈에 보이는 시각적 속성이다.
질감은 표면이 거칠거나 부드럽게 느껴지는 시각적 표면감이다.
형태는 대상의 외곽선과 덩어리감 같은 모양의 속성이다.
축은 공간이나 시선을 일정 방향으로 이끄는 조직 원리이므로, 형·색·질감처럼 경관을 이루는 직접적 시각요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색채는 대표적인 경관구성요소이다. 식재, 포장, 수면, 구조물은 모두 색채를 통해 시각적으로 인지된다. 틀린 표현은 '경관구성요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색채는 경관구성요소이다'이다.

② O
축은 공간을 배열하고 시선을 유도하는 구성 원리이다. 따라서 색채·질감·형태처럼 경관의 직접적 시각요소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X
질감은 재료와 식생의 표면 특성이 주는 시각적 감각으로 경관분석의 기본 요소이다. 틀린 표현은 '경관구성요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질감은 경관구성요소이다'이다.

④ X
형태는 수목, 지형, 시설물의 외형을 파악하는 핵심 시각요소이다. 틀린 표현은 '경관구성요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형태는 경관구성요소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축도 조경 설계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색채·질감·형태와 같은 층위의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축은 '무엇이 보이는가'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조직하고 바라보게 하는가'에 관한 원리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눈에 직접 보이는 속성인지, 아니면 공간을 배치하고 연결하는 원리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형·색·질감은 시각요소이고, 축·대칭·리듬 같은 개념은 구성 원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관요소는 형·색·질감이고, 축은 요소가 아니라 공간조직 원리이다.

NoteBase

문 7. 경계(boundary)와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계는 경관에 걸친 종자분산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

② 일반적으로 인접 조각 사이의 대조가 커질수록 종다양도가 높아진다.

③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식물종은 낮은 기온과 증발산율로 야기된 습윤 조건을 견디는 경향이 크다.

④ 가장자리에 한정하여 서식하는 종들을 핵심종(keystone species)이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계와 가장자리 효과의 의미, 그리고 인접 서식지의 대조도가 커질 때 가장자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계는 서로 다른 서식지 조각이 만나는 전이대이다. 가장자리 효과는 이 전이대에서 빛, 바람, 온도, 습도, 종 조성이 내부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인접 조각의 대조가 클수록 가장자리의 환경 변화가 커지고, 경계부에서는 두 서식지의 종이 함께 나타나 종풍부도와 종다양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경계는 종자분산을 무조건 한 방향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다. 경계의 투과성에 따라 이동을 막기도 하고 일부 종의 이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틀린 표현은 '일방적으로 제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경계는 종자분산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이다.
② O: 인접 조각 사이의 대조가 커질수록 미기후와 서식조건 차이가 뚜렷해져 가장자리 효과가 강해진다. 그 결과 경계부에서는 양쪽 서식지의 종이 함께 나타나 종다양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다.
③ X: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광량, 풍속, 온도 변동, 증발산이 커져 내부보다 건조해지기 쉽다. 틀린 표현은 '낮은 기온과 증발산율로 야기된 습윤 조건'이다. 올바르게는 '높은 광량과 증발산으로 나타나는 건조하고 변동성 큰 조건'이다.
④ X: 핵심종은 가장자리에만 사는 종이 아니라, 개체수에 비해 군집 구조와 생태계 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 종이다. 틀린 표현은 '핵심종'이다. 올바르게는 '가장자리에 한정하여 서식하는 종은 가장자리종 또는 경계 선호종으로 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장자리의 미기후를 내부림과 반대로 서술한 점이 함정이다. ④는 '핵심종'이라는 익숙한 생태학 용어를 끌어와 가장자리종과 바꿔치기한 선지이다. ①도 경계의 기능을 '일방적 차단'으로 단순화한 점에서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계 문제는 먼저 '전이대인가, 차단벽인가'를 구분한다. 그다음 가장자리의 대표 환경이 내부보다 밝고 건조하며 변동성이 큰 쪽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종명 용어가 나오면 핵심종, 가장자리종, 내부종처럼 개념 정의를 먼저 대입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대조도 증가 -> 가장자리 효과 강화 -> 경계부 종다양성 증가 경향이다. 핵심종은 영향력의 개념이고,
가장자리종은 서식 위치의 개념이다.

NoteBase

문 8. <보기>의 생태환경 관련 국제협약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가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각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은 그 국가의 고유한 자산이 되며, 해당 생물종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생물주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① 생물다양성 협약(CBD)
②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③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④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내용인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한 공유와 국가의 생물주권 인정을 다른 국제협약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다.
CITES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다루는 협약이다.
CMS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약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기의 핵심 문구는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한 공유와 국가가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대표 내용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협약을 보기의 설명과 연결한 점이다. CITES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규제가 핵심이며, 유전자원 이익공유나 생물주권을 중심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습지 보전 협약을 보기의 설명과 연결한 점이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핵심이며, 생물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유를 직접적인 중심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협약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이동성 야생동물 보전 협약을 보기의 설명과 연결한 점이다. CMS는 철새 등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이 핵심이며, 국가의 생물주권과 유전자원 이익공유를 전면에 둔 협약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이다.

오답 포인트

생태 관련 국제협약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모두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기의 결정 단서는 이익공유와 생물주권이다. 습지, 국제거래, 이동성 동물처럼 보호대상이나 관리수단이 먼저 떠오르는 협약은 CBD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협약 문제는 보호대상보다 먼저 핵심 키워드를 본다. 유전자원, 이익공유, 생물주권이 나오면 CBD이고, 국제거래는 CITES, 습지는 람사르협약, 이동성 야생동물은 CMS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CBD는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공유의 3축이며 생물주권을 인정하는 협약이다.

NoteBase

문 9. 국제명명법에 의한 식물의 학명 기입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명+속명+명명자

② 과명+종명+명명자

③ 과명+종명+속명

④ 속명+종명+명명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식물 학명의 기본 표기 순서가 속명, 종명, 명명자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속명은 같은 속에 속한 종들을 묶는 기본 분류 단위의 이름이다. 종명은 그 속 안에서 개별 종을 구별하는 이름이다. 명명자는 그 학명을 최초로 유효하게 발표한 사람 표시이다. 과명은 상위 분류군 이름이므로 학명의 기본 기입 순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과명+속명+명명자는 학명의 기본 형식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과명이 들어간 점과 종명이 빠진 점이다. 실제로는 속명+종명+명명자의 순서로 적는다.
② X
과명+종명+명명자는 속명이 빠져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과명을 넣고 속명을 뺀 점이다. 실제로는 속명+종명+명명자의 순서이다.
③ X
과명+종명+속명은 명명자가 빠져 있고 속명과 종명의 배열도 학명 표기 방식과 맞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과명을 포함하고 속명을 뒤에 둔 점이다. 실제로는 속명+종명+명명자로 적는다.
④ O
속명+종명+명명자는 국제명명법에 따른 식물 학명 기입의 기본 순서에 맞는다. 속명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종명과 명명자를 붙인다.

오답 포인트

과명과 학명을 혼동하면 쉽게 틀린다. 이 문항은 상위 분류군인 과명을 끼워 넣어 학명의 기본 구성요소처럼 보이게 만든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물 학명 표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과명은 제외하고, 실제 학명을 이루는 속명과 종명을 찾은 뒤 명명자 표기가 뒤따르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학명은 과명이 아니라 속명-종명-명명자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0. 공원녹지의 수요분석 중 양적(量的) 수요산정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생태학적 방식 :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공급원으로 요구되는 수림지(樹林地)의 면적을 산출하여 공원녹지 수요를 결정하는 방식

② 기능배분방식 : 도시 전체면적을 도시가 담게 될 기능별로 적정비율을 설정하여 배분하는 방식, 기존 시가화지역에 적용

③ 인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 : 인구 1인당 요구되는 공원 및 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적용

④ 공원 이용률에 의한 방식 : 생활권 위계별로 공원녹지를 배분하는 방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원녹지의 양적 수요산정방식별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태학적 방식은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수림지 면적에서 공원녹지 수요를 잡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산소와 수림지이다.
기능배분방식은 도시 전체 면적을 도시 기능별 적정 비율로 나누어 녹지 면적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기능별 토지배분이다.
인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은 1인당 필요한 공원 및 녹지 면적 기준을 곱하여 총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1인당 면적 기준이다.
공원 이용률에 의한 방식은 이용인구, 이용률, 회전율, 체재시간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실제 이용수요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생태학적 방식은 도시민의 산소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림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원녹지 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표현은 "기존 시가화지역에 적용"이다. 기능배분방식은 도시 전체 면적을 기능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맞지만, 주로 신도시나 개발예정지처럼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신개발지나 종합적 토지이용 계획 단계에 적용"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적용"이다. 인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은 1인당 필요 면적 기준으로 총량을 계산하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고밀 대도시의 복잡한 토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일반적인 계획기준 제시나 개략적 수요 추정에 활용"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생활권 위계별로 공원녹지를 배분"이다. 이는 생활권 체계나 위계에 따른 배치 개념에 가깝고, 공원이용률에 의한 방식의 설명이 아니다. 공원 이용률에 의한 방식은 실제 이용인구와 이용률을 기준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정한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이용인구, 이용률, 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공원녹지 수요를 산정"이다.

오답 포인트

방식 이름의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②는 기능배분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 지역에나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고, ④는 이용률이라는 말 대신 생활권 위계별 배분 개념을 끼워 넣어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적 수요산정방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는지부터 본다. 산소와 수림지가 나오면 생태학적 방식, 1인당 면적 기준이 나오면 원단위 방식, 이용인구와 이용률이 나오면 이용률 방식, 도시 전체 면적의 기능별 비율이 나오면 기능배분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산소는 생태학적 방식, 사람당 면적은 원단위 방식, 실제 이용수요는 이용률 방식, 도시기능 비율은 기능배분방식이다.

NoteBase

문 11. 수목 중 상록수가 아닌 것은?

① 개잎갈나무

② 붉가시나무

③ 예덕나무

④ 황칠나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상록수와 낙엽수의 구분, 특히 제시된 수종의 생육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록수는 겨울에도 잎이 오래 남는 수목이고, 낙엽수는 계절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는 수목이다.
개잎갈나무는 상록침엽교목, 붉가시나무와 황칠나무는 상록활엽수, 예덕나무는 낙엽 활엽 소교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잎갈나무는 상록교목이므로 상록수에 해당한다.
② O
붉가시나무는 상록활엽의 참나무류이므로 상록수에 해당한다.
③ X
예덕나무는 낙엽 활엽 소교목이므로 상록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예덕나무를 상록수로 보는 전제이다. 올바르게는 "예덕나무는 낙엽수이다."가 된다.
④ O
황칠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므로 상록수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예덕나무는 남부 해안 상록수림 주변에도 나타나므로 서식 환경만 보고 상록수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제는 자생 환경이 아니라 해당 수종 자체의 상록·낙엽 생육형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종 분류 문제는 먼저 잎의 유지 방식을 본다. 침엽·활엽보다 앞서 상록·낙엽을 가르고, 남부 수종이라도 예덕나무처럼 낙엽수인 예외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예덕나무는 낙엽수, 붉가시나무·황칠나무는 상록활엽수, 개잎갈나무는 상록침엽수이다.

NoteBase

문 12. Perry의 근린주구 조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확보한다.

② 공공시설로서 학교, 교회, 근린상가는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한다.

③ 오픈스페이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갖춘다.

④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를 계획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Perry의 근린주구 원칙에서 중심시설과 외곽시설의 배치, 주거단위 규모, 오픈스페이스와 간선도로 계획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통학권을 기준으로 한 주거단위이다 / 결정 차이축: 주구의 규모와 중심시설 / 키워드: 초등학교, 보행권, 생활권
중심 공동시설은 학교와 공원처럼 주민이 안전하게 걸어서 접근해야 하는 시설이다 / 결정 차이축: 주민 결속과 보행 접근 / 키워드: 학교 중심
외곽 유치시설은 상가와 간선도로처럼 외부 교통을 유발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이다 / 결정 차이축: 통과교통 차단 / 키워드: 상업시설 외곽, 간선도로 경계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주거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Perry 근린주구의 기본 원칙이다.
주구 크기를 학교 서비스권으로 잡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근린상가는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한다"는 표현이다.
Perry는 학교나 공원 같은 공동시설은 중심에 둘 수 있으나, 근린상가는 외부 차량 유입을 줄이기 위해 주구 외곽이나 진입부에 배치한다.
따라서 "학교·교회 등 공동시설은 중심에 둘 수 있으나 근린상가는 외곽에 둔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근린주구는 주민의 일상적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포함한다.
오픈스페이스를 체계적으로 확보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④ O
근린주구는 내부의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외곽 간선도로로 차량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을 중시한다.
주구 경계를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형성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학교 중심 원칙과 상가 배치 원칙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②에 속기 쉽다. Perry는 학교·공원 같은 공동시설은 중심으로, 근린상가와 간선도로는 외곽으로 분리해서 배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Perry 문제는 시설을 먼저 중심 배치와 외곽 배치로 나누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학교·공원은 중심, 상가·간선도로는 외곽이라는 배치 축이 보이면 정오를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Perry 근린주구는 학교는 중심, 상가는 외곽, 간선도로는 경계이다.

NoteBase

문 13. 우리나라 산림식생대 중 온대중부림의 수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나무

② 서어나무

③ 구실잣밤나무

④ 졸참나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식생대에서 온대중부림과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대표 수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온대중부림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식생대로, 소나무와 각종 낙엽활엽수가 함께 분포한다. 대표 수종으로 소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이 해당한다.
구실잣밤나무는 남해안과 도서 지역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온대중부림의 전형 수종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나무는 우리나라 온대중부림에서 널리 나타나는 대표 수종이므로 옳다.
② O: 서어나무는 온대 중부의 낙엽활엽수림을 구성하는 대표 수종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구실잣밤나무를 온대중부림 수종으로 본 점이다. 실제로는 남부 해안과 도서 지역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수종이다.
④ O: 졸참나무는 온대중부림의 대표적인 낙엽활엽수 수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온대중부림과 남부의 상록활엽수림 수종을 함께 섞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③의 구실잣밤나무는 이름이 익숙해 보이지만 상록활엽수라는 점에서 온대중부림보다 더 따뜻한 식생대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종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상록활엽수인지 낙엽활엽수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온대중부림은 소나무와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같은 중부 낙엽활엽수가 중심이고, 구실잣밤나무처럼 상록활엽수 성격이 강한 수종은 남부의 따뜻한 식생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암기 포인트

온대중부림은 소나무·서어나무·졸참나무이고, 구실잣밤나무는 남부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이다.

NoteBase

문 14. 우리나라 전통조경 중 조성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① 경렴정 별서정원

② 경회루 지원

③ 다산초당

④ 소쇄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대표 사례들을 조성 시기 순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렴정 별서정원은 탁광무가 고려 말 광주에 조성한 별서정원으로 보기된다.
경회루 지원은 경복궁 경회루 일대의 궁궐정원으로 조선 초에 본격적으로 조영되었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조성한 조선 중기 별서정원이다.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거처하며 이름이 알려진 조선 후기의 원림 공간이다.
이 문항의 결정 차이축은 정원의 성격이 아니라 조성된 시대의 선후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경렴정 별서정원은 탁광무와 연결되는 고려 말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 네 선택지 가운데 조성 시기가 가장 이르다.

② X
경회루 지원은 조선 태종 12년(1412)에 경회루와 연못이 크게 조영된 궁궐정원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가장 이른 조성 사례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경회루 지원은 조선 초기 조영으로, 고려 말의 경렴정 별서정원보다 늦다.

③ X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1808년에 처소를 옮겨 머문 조선 후기 공간으로, 네 선택지 중 가장 늦은 축에 속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가장 빠른 조성 시기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원림으로 경렴정 별서정원보다 훨씬 뒤 시기이다.

④ X
소쇄원은 양산보가 조성한 조선 중기 정원으로 일반적으로 16세기 전반, 중종 대의 원림으로 본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가장 이른 조성 사례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소쇄원은 조선 중기 조성으로 고려 말의 경렴정 별서정원보다 늦다.

오답 포인트

경회루 지원이 궁궐정원이라 매우 오래되었다는 인상 때문에 ②를 먼저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절대적 유명세가 아니라 고려 말, 조선 초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시대 순서를 묻는 문제이므로 경렴정 별서정원이 가장 앞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정원 문제에서 인물이나 공간 유형보다 먼저 시대를 붙여 본다. 고려 말이면 조선의 궁궐정원이나 별서정원보다 앞서고, 조선 안에서도 초기-중기-후기 순으로 정리하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경렴정은 고려 말, 경회루는 조선 초, 소쇄원은 조선 중기,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이다.

NoteBase

문 1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의할 때, 생태통로 보완시설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도울타리(포유류) : 포유류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울타리의 망목(mesh) 규격은 지표면에서 80cm 높이까지는 상하 간격이 10cm를 넘지 않고, 80cm 높이 이상부터는 2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탈출시설(탈출경사로) : 탈출경사로의 기울기는 30° 이하로 하고 경사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요철을 만들어 탈출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요철간격은 뱀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5cm 내외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로횡단 보완시설(조류) : 투명한 재질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류가 방음벽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면에 불투명의 세로줄무늬가 있도록 한다. 이때 세로줄무늬의 너비는 2cm 이상, 간격은 5cm 이내로 한다.

④ 도로횡단 보완시설(하늘다람쥐) : 기둥과 산림 또는 가까운 교목의 수관과의 거리는 10m 이내로 하며, 하늘다람쥐가 활강하여 이동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가급적 20m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통로 보완시설별 세부 설치기준의 수치를 서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유도울타리의 망목 규격, 탈출경사로의 요철간격, 조류 충돌 방지용 세로줄무늬 간격, 하늘다람쥐 횡단시설의 이격거리를 정확히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생태통로 보완시설은 유도울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로드킬과 이동 단절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보완 장치이다.

핵심 구분

포유류 유도울타리의 망목은 지표면에서 80cm까지 10cm 이하, 그 위는 20cm 이하이다. 탈출경사로의 요철간격은 5cm 내외이다. 조류 충돌 방지용 투명 방음벽의 세로줄무늬는 너비 2cm 이상, 간격 10cm 이내이다. 하늘다람쥐 횡단시설은 기둥과 수관의 거리 10m 이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20m 이내가 기준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포유류 유도울타리의 망목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상 지표면에서 80cm 높이까지는 상하 간격이 10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80cm를 넘는 구간은 20cm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옳다.

② O
탈출경사로는 기울기를 30도 이하로 하고, 미끄럼을 막기 위한 요철을 두며, 그 요철간격은 뱀류의 특성을 고려해 5cm 내외로 둔다. 제시문은 기울기와 요철간격을 모두 맞게 적었으므로 옳다.

③ X
투명 방음벽의 조류 충돌 방지 기준은 불투명 세로줄무늬의 너비를 2cm 이상으로 하고, 줄무늬 간격은 10cm 이내로 하는 것이다. 제시문은 간격을 5cm 이내라고 하여 수치를 잘못 적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간격은 5cm 이내"
올바른 표현: "간격은 10cm 이내"

④ O
하늘다람쥐 횡단시설은 기둥과 산림 또는 가까운 교목 수관과의 거리를 10m 이내로 하고, 하늘다람쥐가 활강해 이동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는 가급적 20m 이내로 둔다. 제시문은 이 이격거리를 맞게 설명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②의 탈출경사로 요철간격 5cm와 ③의 세로줄무늬 간격 10cm를 서로 뒤섞도록 함정을 만들었다. 둘 다 작은 수치라 비슷해 보이지만, 5cm는 뱀류 탈출경사로의 요철간격이고 10cm는 조류 충돌 방지 줄무늬의 간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태통로 보완시설 문제는 시설 종류를 먼저 나눈 뒤 그 시설에 붙는 대표 수치를 연결해 판단한다. 포유류 유도울타리는 10cm·20cm 망목, 탈출경사로는 30도·5cm, 조류 방음벽은 2cm·10cm, 하늘다람쥐 횡단시설은 10m·20m로 묶으면 혼동이 줄어든다.

암기 포인트

탈출경사로는 5cm, 조류 줄무늬는 10cm, 하늘다람쥐는 10m와 20m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6. 단풍나무과(科)에 속한 수종이 아닌 것은?

① 붉나무
② 부게꽃나무
③ 복자기
④ 신나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 분류 기준에서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수종과 옻나무과 수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풍나무과: 시험 분류 기준에서 단풍나무속 수종을 묶는 분류군으로 부게꽃나무, 복자기, 신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 결정 차이축: 단풍나무속 여부 / 키워드: 단풍나무속, 단풍류
붉나무: 붉나무속의 낙엽활엽수로 옻나무과에 속한다. / 결정 차이축: 단풍나무속이 아니라 붉나무속이라는 점 / 키워드: 옻나무과, 붉나무속

선지별 해설

① O
붉나무는 단풍나무과가 아니라 옻나무과 수종이므로 '단풍나무과에 속한 수종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선지 전체이다. 부게꽃나무는 시험 분류 기준에서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 수종이다. 올바르게는 '부게꽃나무는 단풍나무과에 속한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선지 전체이다. 복자기는 단풍나무속 수종으로 단풍나무과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복자기는 단풍나무과 수종이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선지 전체이다. 신나무는 단풍나무속 수종으로 단풍나무과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신나무는 단풍나무과 수종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붉나무도 가을에 붉게 물드는 수종이라 이름과 단풍 이미지 때문에 단풍나무류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잎색이 아니라 식물 분류를 묻는 문제이며, 단풍나무속인지 붉나무속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를 묻는 문제는 수목 이름의 느낌보다 속 단위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복자기·부게꽃나무·신나무처럼 단풍나무속으로 묶이는 수종은 단풍나무과로 보고, 붉나무처럼 붉나무속 수종은 옻나무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복자기·부게꽃나무·신나무는 단풍나무속이고, 붉나무만 옻나무과이다.

NoteBase

문 17. 시방서(specific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을 설명하는 시공지침이다.

② 공사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때 현장설명서가 우선 적용된다.

③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공사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④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1975년에 제정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의 역할과 설계서 적용순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시방서는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는 종합적인 시공기준이다.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을 반영하고 설계도면에 적기 어려운 사항을 구체화한 현장 맞춤형 시공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방서는 도면만으로 다 담기 어려운 재료, 공법, 품질, 시공방법 등을 글로 규정하는 문서이다. 문장의 표현은 공사시방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설계서류는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하지만 내용이 충돌하면 적용순서를 따진다. 이 문항의 취지에서는 현장설명서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보다 앞서는 서류로 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공사시방서를 기본으로"이다.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은 공사시방서이다.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특정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는 종합 기준이다.
④ O: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1975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는 설명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③에서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의 자리를 바꾸어 헷갈리게 한다.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이라는 표현은 공사시방서의 핵심 문구인데, 이를 전문시방서에 붙이면 바로 틀린 선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방서 문제가 나오면 먼저 표준, 전문, 공사의 위계를 본다. 표준은 기본 기준, 전문은 표준을 확장한 종합 기준, 공사는 표준과 전문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한 개별 공사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표준은 뼈대, 전문은 종합, 공사는 현장맞춤이라는 흐름이다.

NoteBase

문 18. 조경식재 형식 중 자연풍경식재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표본식재

② 열식재

③ 교호식재

④ 임의식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형식 식재와 자연풍경식 식재의 대표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본식재는 형태가 좋은 수목을 독립적으로 두어 시각적 초점을 만드는 식재이다.
열식재는 같은 수종을 일정 간격으로 줄지어 배치하는 정형식 식재이다.
교호식재는 열식재를 변형하여 수목을 서로 어긋나게 반복 배치하는 정형식 식재이다.
임의식재는 수목을 불규칙한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자연풍경식 식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본식재는 한 그루 또는 소수의 수목을 독립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므로 자연풍경식재의 대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자연풍경식재 유형'이다. 올바르게는 '표본식재는 독립수의 형태미와 초점을 강조하는 식재이다.'
② X: 열식재는 같은 수종을 일정 간격으로 한 줄 배치하는 방식이므로 규칙성과 반복성이 핵심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풍경식재 유형'이다. 올바르게는 '열식재는 정형식 식재의 대표 유형이다.'
③ X: 교호식재는 열식재를 어긋나게 배치한 형태일 뿐 여전히 인공적 질서가 강하다. 틀린 표현은 '자연풍경식재 유형'이다. 올바르게는 '교호식재는 정형식 식재에 속한다.'
④ O: 임의식재는 수목을 불규칙한 간격과 자연스러운 군으로 배치하여 자연경관에 가까운 인상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자연풍경식재 유형으로 가장 옳다.

오답 포인트

열식재와 교호식재는 배열이 조금 달라 보여도 공통적으로 간격과 배치 질서가 분명하므로 정형식 식재이다.
표본식재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분류 기준은 분위기가 아니라 배치 원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 유형 문제는 먼저 수목 배치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본다. 줄맞춤, 반복, 대칭이 보이면 정형식이고, 간격과 군의 구성이 자연스럽고 비정형이면 자연풍경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형식은 줄과 규칙, 자연풍경식은 불규칙과 임의식재이다.

NoteBase

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과 ㉡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 3, ㉡: 6

② ㉠: 4, ㉡: 6

③ ㉠: 6, ㉡: 4

④ ㉠: 6, ㉡: 3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확보기준의 수치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하나의 도시지역 전체 기준과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 해당 도시지역에 주민 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면적기준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이다.
즉 ㄱ은 6, ㄴ은 3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3, ㄴ을 6으로 본 조합이다. 시행규칙상 두 수치가 서로 뒤바뀌었다.
- 틀린 표현: ㄱ=3, ㄴ=6
- 올바른 표현: ㄱ=6, ㄴ=3

② X
- ㄱ을 4, ㄴ을 6으로 본 조합이다. 하나의 도시지역 전체 기준은 4가 아니라 6이고, 예외적 완화기준도 6이 아니라 3이다.
- 틀린 표현: ㄱ=4, ㄴ=6
- 올바른 표현: ㄱ=6, ㄴ=3

③ X
- ㄱ은 6으로 맞지만 ㄴ을 4로 본 점이 틀렸다.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기준은 4가 아니라 3이다.
- 틀린 표현: ㄴ=4
- 올바른 표현: ㄴ=3

④ O
- ㄱ=6, ㄴ=3으로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확보기준을 정확히 짝지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전체 도시지역 기준 6제곱미터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기준 3제곱미터를 단순 암기 숫자로만 외워 서로 바꿔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ㄱ은 원칙, ㄴ은 예외적 완화기준이라는 구조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공원 면적기준 문제는 먼저 적용 범위가 전체 도시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인지부터 본다. 전체면 6, 제외 후 기준이면 3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전체 6, 제외 후 3이다.

NoteBase

문 20. 경관분석방법 중 Litton의 산림경관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경관: 넓은 초원과 같이 시야가 가리지 않고 멀리 터져 보이는 경관

② 지형(地形)경관: 숲속의 호수 경관

③ 위요(圍繞)경관: 주위가 숲이나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관

④ 초점(焦點)경관: 계곡 끝에 폭포가 위치한 경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Litton의 산림경관 기본유형에서 전경관, 지형경관, 위요경관, 초점경관의 정의와 대표 사례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경관은 시야가 막히지 않고 멀리 트여 보이는 파노라마형 경관이다.
지형경관은 산봉우리나 절벽처럼 지형지물이 강한 인상을 주며 경관의 지표가 되는 경관이다.
위요경관은 중심 공간이 숲이나 산들로 둘러싸여 포위된 느낌을 주는 경관이다.
초점경관은 시선이 한 지점으로 모이도록 유도되는 경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넓은 초원처럼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멀리 터져 보이는 모습은 전경관의 전형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지형경관: 숲속의 호수 경관'이다. 지형경관은 산봉우리나 절벽처럼 지형 자체가 경관의 지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올바르게는 위요경관: 숲속의 호수 경관이다.
③ O: 주위가 숲이나 산들로 둘러싸인 경관은 위요경관의 설명과 맞다.
④ O: 계곡 끝에 폭포가 위치하여 시선이 한 점으로 집중되는 경관은 초점경관의 대표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지형경관과 위요경관을 모두 특징 있는 자연경관으로만 외우면 ②처럼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호수라는 대상보다 주변이 둘러싸여 있는 공간감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야가 멀리 트이면 전경관, 지형지물이 랜드마크처럼 경관의 지표가 되면 지형경관, 중심 공간이 주변 요소에 둘러싸여 있으면 위요경관,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이면 초점경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경관=멀리 트임, 지형경관=랜드마크 지형, 위요경관=둘러싸임, 초점경관=한 점 집중이다.

NoteBase